

한국 주택 가사작업공간의 관련용어 변화와 그 의미에 관한 연구 —부역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Tra• sition of Terminology and its Meaning of Support Spaces
Focused on the Kitchens in Korean Houses

서원대학교 가족환경학과
부 교수 김 대 년
송실대학교 실내건축과
전임강사 서 귀 숙
상명대학교 소비자·주거학과
조 교수 신 화 경
경희대학교 아동·주거학과
부 교수 오 혜 경
이화여자대학교 환경디자인 전공
조 교수 최 경 실

Dept. of Family Resource Studies & Housing, Seowon Univ.

Associate Prof. : Kim, Dae-Nyun

Dept. of Interior Architecture, Soongsil Univ.

Full-time Instructor : Suh, Kuee-Sook

Dept. of Consumer & Housing Studies, Sangmyung Univ.

Assistant Prof. : Shin, Hwa-Kyung

Dept. of Housing & Child Development, Kyunghee Univ.

Associate Prof. : Oh, Hye-Kyung

Environmental Design Major, Ewha Woman's Univ.

Assistant Prof. : Choi, Gyoung-Sil

〈 목 차 〉

- | | |
|---------------------------|----------------------------|
| I. 서 론 | V. 소설에 나타난 부역의 설비, 위치, 사용자 |
| II. 선행연구를 통해 본 가사작업공간의 변화 | VI. 결론 및 제언 |
| III. 소설에 나타난 가사작업공간 관련용어 | 참고문헌 |
| IV. 소설을 통해 본 부역의 의미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transition of meaning and terminology of support spaces in Korean houses based on preliminary studies and analysis of Korean novels.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The planning and location of the kitchen and its support spaces developed slowly until the 1970s. Buok has been the terminology of support spaces that appeared often and continuously in novels. The word Bongdang was mentioned only before the 1900s. The new words such as Sikdang, Buokbang appeared after the 1960s. Jubang appeared after the 1980s.

The meaning of kitchen space described in novels were various. Typically the kitchen was used for cooking, washing dishes, keeping kitchen utensils, foods and miscellaneous goods. Exceptionally the kitchen was the place for quarreling with others, weeping secretly, hiding, washing clothes etc. The kitchen was also a symbol of the wealth of the family, but many kitchens were usually described in novels as the unpleasant places.

Even though most users of the kitchen in novels were women, men also used the kitchen without any restrictions. However, the activities of men and women of the upper class in the kitchen were never described in any novels.

I. 서론

1. 연구배경과 목적

우리 나라는 조선시대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는 주택외관은 물론 내부 공간에서도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 변화의 양상은 공간에 따라 각기 다르다. 예를 들면, 안방은 난방시설의 개선과 서구식 주생활의 도입으로 기존에 담당했던 다목적 기능이 다른 공간으로 분산되면서 공간기능이 축소되었고(주서령, 1998), 여자만의 공간에서 부부공간으로 공간사용자가 바뀌었으나 주택 내에서의 그 지위는 지속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오혜경 외, 1999).

한국 주택에 있어서의 가사작업공간, 특히 부엌은 경제발전과 병행하여 유입된 외국문화의 영향을 받으면서 공간의 위치, 설비 및 가구, 공간 사용자 등에서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부엌의 변천과정은 물리적인 측면에서 관심을 갖고 접근한 연구들(윤복자 외, 1994; 주남철, 1987; 윤정옥, 1981; 외 다수)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 주택에서 가사작업과 관련된 공간을 지칭하는 용어에는 무엇이 있었으며 그러한 용어들은 어떤 변화과정을 거쳐서 현재의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지, 또, 가사작업공간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활동이 이루어졌으며 이들 공간을 사용한 사람의 성별과 계층적 특성은 구별되었는지 등을 중심으로 가사작업공간의 의미를 심층분석한 연구는 찾아 볼 수 없다. 이러한 정보를 획득하려면 과거의 생활을 구체적으로 기억해 낼 수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구체적 면접을 실시하여 그 내용을 토대로 가사작업공간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는 방법이 시도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오랜 기간 동안 한국 주택에서의 주거 생활에 대한 변화내용을 기억하고 있고 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노인을 찾아내어 자료를 수집해야 하는 등의 제약으로 어려움이 많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 문학작품을 분석자료로 활용하여 가사작업공간이 등장하는 문장을 발췌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주거공간 연구에 문학작품이 이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 연구는 외국(Frank, 1979; 張文 외, 1995; 서귀숙,

1996)에서 이미 시도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1998년 이후에 문학작품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공간의 용어와 의미 등을 주제로 한 연구들(신화경 외, 1998; 서귀숙 외, 1998 오혜경 외, 1999)이 발표되었다.

주거공간 연구에 문학작품이 활용될 수 있다는 근거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문학작품의 내용 중 상당부분이 공간 또는 장소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데 할애되고 있을 뿐 아니라, 주택 내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활동내용, 공간의 위치와 설비, 공간 내에서의 활동에 참여하는 인물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서 공간에 내재된 의미를 파악하기에 도움이 되는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문학작품 속의 공간이 허구의 공간이며 작가 자신의 공간에 대한 개념이 표출된 것이어서 실제의 공간개념과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도 있으나, 공간이 갖는 근원적 의미는 크게 변하지 않으며, 다수의 독자를 상징하면서 작가가 쓴 소설은 어떤 의미에서는 작가와 독자가 이루어 낸 공동작업이라고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작품의 발간시점에서 그 작품은 이미 그 사회에 공유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서귀숙 외, 1998).

이러한 연구배경을 토대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일차적으로 한국 주택에 있어서의 가사작업공간의 변화를 선행연구를 통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차적으로는 주거공간이 배경으로 등장하는 대표적인 한국소설을 선정하여 소설에 등장하는 가사작업공간 용어를 발췌하여 문장분석을 중심으로 조선시대부터 오늘날까지 사용된 가사작업공간 관련용어의 종류와 변화과정을 알아보고, 한국 주택에 있어서의 부엌이 지닌 의미, 그리고 부엌의 설비, 위치, 사용자를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가 한국 주택에 있어서의 가사작업공간의 변화과정과 의미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가사작업공간 용어의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 연구방법과 연구내용

1) 연구방법

본 연구는 연구대상인 주거공간을 직접 관찰하거나, 공간사용자와의 면접 또는 질문지조사를 통해 공간을 연구하는 직접적인 접근방법이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이차적 자료를 활용하는 간접적인 접근방법을 채택하였다. 즉, 기존의 문헌을 고찰하여 한국 주택에서의 가사작업공간 변화를 정리하는 방법과 한국 소설 중에서 가사작업공간 용어가 등장하는 문장을 발췌하여 관련내용을 분석하는 방법을 병행하였다.

가사작업공간 용어를 발췌하기 위하여 연구의 초기단계에 활용한 문학작품은 한국소설 63개이었다. 연구대상을 소설로 제한한 이유는 문학작품의 유형에 따른 상이성에 기인한 어려움을 배제하기 위해서였다. 연구대상 작품의 선정은 소설을 전공한 국문학자(서원대 김의곤 교수, 경희대 김현주 교수)의 도움을 받았다.

소설의 선정기준은 역사적 요인을 기준으로 시대를 구분한 후 각 시대를 대표하는 성격이 짙은 소설, 그리고 주거공간이 작품의 배경으로 많이 등장하는 소설이라는 조건으로 하였다. 소설의 배경시대는 1900년 이전, 1900-1930년 이전, 1930-1950년 이전, 1950-1960년 이전, 1960-1970년 이전, 1970-1980년 이전, 1980년 이후로 구분하였다. 시대구분에 대한 근거와 구체적인 내용은 본 연구의 선행연구라 할 수 있는 신화경 외(1998)의 논문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배경시대별로 작품을 분류한 후 작품의 수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선정받아 보충하였다. 연구대상 소설을 유형별로 보면 대하편 2편, 장편 13편, 중편 8편, 단편 40편이었다.

연구의 진행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정받은 소설에서 주거공간 용어가 나오는 모든 문장을 발췌하여 관련문장, 쪽수, 행 등을 기록하였다. 즉, 본 연구에서는 문학작품을 독해하는 3가지 방법인 단어수준에서의 해석법, 문장 수준에서의 해석법, 작품수준에서의 해석법 중에서 문장수준에서 해석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둘째, 각 소설에서 발췌한 문장을 단위

주거공간별(예; 안방, 사랑방, 마루, 부엌, 변소 등)로 구분하여 재정리하였다. 셋째, 가사작업공간 용어가 포함된 문장을 용어별, 소설별, 시대별로 정리한 후 개별용어의 시대별 출현빈도에 따른 변화과정을 분석하였다. 넷째, 가사작업공간 중 부엌을 중심으로 한국 주택에서의 부엌의 의미, 부엌의 설비, 위치, 사용자 등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였다.

2) 연구내용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선행연구의 고찰을 통해 한국 주택에 있어서의 가사작업공간의 변화를 밝힌다.

② 소설에 등장하는 가사작업공간과 관련된 용어의 종류와 변화과정을 파악한다.

③ 가사작업공간 중에서 부엌을 중심으로 공간이 어떻게 활용되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한국 주택에 있어서의 부엌의 의미를 분석한다.

④ 부엌의 설비, 위치, 사용자를 밝힌다.

II. 선행연구를 통해 본 가사작업공간의 변화

1. 조선시대 이전

조선시대 이전의 가사작업공간에 관한 문헌자료는 극히 제한되어 있으며, 이들 자료의 대부분은 발굴된 수혈주거지나 고분벽화 등에서 그 정보를 획득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제약때문에 본 연구는 주로 조선시대 이후 가사작업공간의 변화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여기에서는 조선시대 이전의 주택이나 주거생활과 관련된 자료 중에서 가사작업공간에 대해 언급된 내용을 정리하여 요약하는 수준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원시시대의 수혈주거는 그 형태가 원형, 타원형, 말발굽형, 직사각형으로 점차 변화되었는데 내부의 바닥은 흙바닥으로 되어 있었으며, 가운데에 노(爐)가 위치하였고 노를 중심으로 취사와 난방이 이루어졌다. 또, 노 주변의 저장공(貯藏空)은 식품을 보관하는 수납공간으로 이용되었다. 그러던 것이 노의 수가 2개 또는 3개로 늘어나면서 취사공간이 취침공간

과 분화되기 시작되었다(주남철, 1990).

고구려의 안악 3호분(동수묘) 벽화에 반딧간과 함께 발방아간, 용드레 우물간, 고깃간 등의 가사작업공간이 각각 독립된 별채의 형태로 등장하여 그 당시의 주거생활 수준이 매우 높았다고 추측되고 있다. 또, 통일 신라시대의 가사작업공간과 관련된 내용으로는 전성기에 집안에 부뚜막을 만들었다는 기록과 솥으로 밥을 지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으며, 안압지에서 풍로가 출토되었다는 사실(홍형욱, 1991) 등에서 구체적이지는 못하지만 그 당시의 취사생활 수준과 가사작업공간을 상상해 볼 수 있는 정도이다.

고려시대의 가사작업공간에 대한 내용은 더욱 빈약하다. 윤복자 외 4인의 연구(1994)에 의하면, 고려시대 말기에 우리나라 음식이 주식과 부식이 구별되기 시작하였는데 이것을 계기로 취사도구가 발달되었다. 또, 부엌의 구조를 보면, 부엌 내부에 설치하였던 일면갱(一面坑)이 삼면갱으로 그 수가 증가하는 변화가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부엌의 구조가 난방과 취사 겸용공간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는 중요한 원인을 제공한 것이었다.

2. 조선시대 이후

조선시대 이후의 가사작업공간에 관한 문헌자료는 그 이전 시대에 비하여 비교적 많은 편이나, 대부분의 자료가 조선 중기 이후에 집중되어 있고 조선 전기에 대한 내용이 거의 없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여기에서는 가사작업공간의 변화를 조선시대, 외국문물이 도입되기 시작하는 개화기, 그리고 해방 후 현재까지를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조선시대 주택 중에서 부엌-방-방으로 구성된 일자형 서민주택은 식사장소와 취침장소가 분리된 가장 원시적인 평면형태이었다. 중상류주택 중에는 안채 부엌에 찬방(서울 다동 백씨가; 1650년 건축)이나 마루로 된 찬간(와룡동 김씨가; 1750년 건축)을 두었는데 찬방과 찬간을 모두 갖춘 주택(וני동 내관가; 1880년 건축)도 있었다. 부엌의 위치에 있어서 예외적인 경우에는 창덕궁의 연경당을 들 수 있는데, 안채에는 부엌이 없으며 일반 주택에서 부엌이 있을

위치에 함실을 두고 함실의 상부는 누다락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엌에 해당하는 공간인 반빫간(飯備間)은 안채 뒤의 별채에 계획되어 있으며 음식을 장만하고 물품을 관리하는 공간으로 이용되었다(주남철, 1990). 별채공간으로서의 부엌이라 할 수 있는 반빫간이 유구로 남아있는 예는 연경당 뿐이다. 그림으로는 고구려시대 고분인 안악 3호분의 벽화와 1797년에 그린 것으로 추측되는 민씨 회혼례의 모습을 묘사한 병풍의 풍속화가 있다(윤정옥, 1981). 이것으로써 원래는 독립된 채로 구성되었던 부엌이 조선 중기 이후에 난방과 취사를 겸한다는 실용적인 목적을 위해서 안채에 유입된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변화에 의해서 조선 중기 이후에는 부엌이 주택의 안채와 인접하여 위치하게 되고, 수직적인 위치에서 다른 주거공간보다 낮게 자리잡게 되면서 폐쇄적인 공간으로 바뀌게 되었다. 부엌의 내부는 두 부분 즉, 부뚜막을 중심으로 하는 열원공간, 찬방, 찬간 등으로 불리는 배선공간으로 구분되었다. 또, 부엌의 한쪽으로는 안방과 통하는 작은 문이 계획되었고 그밖에 장독대, 우물, 곳간, 헛간, 안방, 대청 등과 동선이 연결되어 있었다. 조선시대 부엌의 바닥은 상류주택에서 서민주택에 이르기까지 공통적으로 다진 흙바닥이었는데(윤정옥, 1981), 상류주택의 부엌도 흙바닥인 것은 부엌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주로 하인이었다는 것이 주원인이라고 추측된다.

이렇게 형성된 조선의 부엌은 개화기 이전까지 그 형태를 유지해 왔으나 개화기와 더불어 많은 변화를 거듭하게 되었다. 윤일주(1966)에 의하면, 서양식 부엌과 식당을 갖춘 주택이 우리나라에 처음 등장한 것은 1884년에 건축된 세창양행의 사택이지만(오영숙, 1977 재인용), 실제로는 1920년대까지 주택구조와 재료, 환기와 채광, 변소나 목욕탕의 개선 등으로 전통주택이 많이 변화된 것에 비하면 부엌의 시설이나 용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은 상태이었다. 1930년 이후에는 서구문화의 유입으로 외래적인 요소가 도입되기 시작하였는데, 부엌과 내실사이에 미세기문을 설치하기, 부엌과 인접한 곳에 식당배치하기, 부엌 바닥에 마루 깔기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1941년에 발족된 조선주택영단에서는 여러 유형의 주택

을 제시하였는데 대부분이 가사작업 동선을 줄이는데 역점을 두어 부엌의 위치를 배려한 것이 특징이었다(홍형옥, 1991).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1960년 이전까지 우리나라 주택에서 부엌은 마당보다 낮은 흙바닥의 재래식 구조에 급배수시설도 제대로 없었다. 그러다가 1970년대에 들어서서 아파트의 대량공급과 함께 난방연료와 취사연료의 분리가 이루어지면서 개량식 부엌, 입식 부엌 등의 서구식의 부엌유형이 급속하게 확산되었다(임창복, 1989). 1970년대 지어진 건축가들의 작품인 상류주택을 대상으로 주택의 공간 구성을 연구한 전경화(1999)에 의하면, 한국 부엌은 난방기능이 없어짐에 따라 부엌이 주택의 중심부로 이동되었고 공간의 개방화와 더불어 중요한 생활공간으로서 그 위상이 높아졌다. 이와 함께 주택계획에서 세탁 등을 위한 가사작업실의 기능이 강조되었다. 부엌-식당-거실의 연계관계의 변화를 보면, 1970년대는 부엌이 분리되고 거실과 식당이 통합되는 양상을 보였다.

1980년대의 부엌수준을 알 수 있는 자료의 한 예로서 서울의 경우를 보면, 입식부엌(68.5%)이 재래식 부엌(31.5%)의 2배를 넘었는데(인구 및 주택 센서스, 1985), 이로써 부엌의 설비 및 위치 등에서 많은 발전을 보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980년 후반의 농촌주택에 관한 연구(윤정숙 외, 1990)에서도 주택에서 개조 또는 변경이 가장 많이 이루어진 공간은 부엌이며, 그 내용은 재래식부엌의 입식화, 마루와 부엌의 바닥 차이 없애기, 입식작업대의 교체 등이 우선 순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1990년대에 이루어진 부엌관련 공간의 변화는 주로 상류주택을 중심으로 일어났는데, 거실과 식당을 분리하고 부엌과 식당을 연계시키는 공간계획을 채택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거실, 식당, 부엌을 완전히 분리, 독립시키는 공간계획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전경화, 1999).

〈표 1〉 본 연구에 이용된 소설의 배경시대와 작품명

* 가사작업공간 관련 용어가 등장하는 소설

배경시대	작 품 명
1900년 이전	춘향가, 흥부전*, 임궫정*
1900~1930년 이전	대하*, 귀의 성*, 삼대*, 무정*, 화수분, 고향, 흙*, 배따라기, 흥가, 토지*
1930~1950년 이전	허물어진 환상, 토지*, 창랑정기*, 경영*, 인간사*, 맥*, 소*, 감자, 별을 헨다
1950~1960년 이전	애미*, 비오는 날*, 월혼*, 장마*, 관촌수필*, 난리 그 뒤*, 남풍*, 미망*, 고 무신*, 머루*, 수련, 은넷골 이야기, 화산택이*, 오지에서 온 편지*, 어린 상록 수*, 태양의 유산* 언덕을 향하여*, 장씨 일가, 흰종이 수업*, 남한산성, 노을*, 전횡단이보기
1960~1970년 이전	짧은 느티나무, 투기*, 이브의 변신*, 녹지대와 분홍의 애드벌룬*, 아홉 켄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이여도*, 흑산도, 껌뻌만리
1970~1980년 이전	노을*, 장석조네 사람들*, 어린 상록수*, 우묵배미의 사랑*, 압구정동엔 비상구가 없다* 지상의 방 한 칸*
1980년 이후	압구정동엔 비상구가 없다*, 떠 있는 망루*, 목마른 계절, 모든 벽은 문이다, 그림자 외출, 외딴 방*

III. 소설에 나타난 가사작업공간 관련용어

1. 가사작업공간과 소설의 배경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63개의 한국 소설 중에서 가사작업공간 용어가 등장하는 작품은 임궫정(홍명희), 삼대(염상섭), 토지(박경리), 창랑정기(유진오), 지상의 방 한칸(박영환) 등 45개(전체 소설수의 71.4%)로 밝혀짐으로써(표 1 참조) 다른 주거공간에 비하여 소설의 배경공간으로 많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밝히면, 안방이 등장하는 소설은 27개, 생리위생공간이 등장하는 소설은 23개로서 가사작업공간이 상대적으로 많은 수(1.7-2.0배)의 소설에서 배경공간으로 등장하였다.

또, 가사작업공간이 등장하는 같은 소설 속에서도 주택내의 다른 어떤 공간보다도 자주 등장하였으며, 공간 내에서의 활동내용, 내부시설, 출입하는 인물에 대한 내용 등이 비교적 상세하게 묘사되었는데, 예를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영선과 숙이 부엌에서 지지고 볶고 해서 술안주를 연방 들어가며 술시중을 드는데...(토지 14권, P61).

* 부엌 불을 켜고 찬장을 뒤졌다. 그것은 끝내 부뚜막의 솔단지와 소금자루 뒤에서 발견되었다... 고 추장과 마른멸치와 냉수를 가지고 부엌을 나오는데...(지상의 방 한 칸, P331).

2. 가사작업공간 관련용어의 종류와 변화과정

소설에 등장하는 가사작업공간을 취사작업공간과 수납공간으로 구분하여 용어의 종류와 시대별 빈도를 정리한 결과, 취사작업공간과 관련된 용어 중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였던 용어는 부엌(367회)이었으며, 다음으로는 봉당, 장독대, 부뚜막, 주방, 아궁이, 취사장의 순으로 밝혀졌다(표 2 참조).

수납공간 용어로 소설에 가장 많이 등장한 것은 헛간(31회)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곳간, 광, 다락(방)의 출현 빈도가 비슷하였다(22-25회). 그밖에 소설 속에 등장한 수납공간 용어는 창고, 도방, 벽장, 도장, 지하실, 고방이었다(표 3 참조).

소설의 분량은 등장하는 용어의 출현빈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빈도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표 2〉 소설에 등장한 취사작업공간 용어의 종류와 빈도

배경시대 \ 용어	부엌	붕당	부뚜막	장독대	찬간	찬방	아궁이	뒷부석	취사장	정지	부엌방	식당방	식당	주방
1900년 이전	67	68	1	1										
1900~1930년 이전	126		6	6	1	4	8	1						1
1930~1950년 이전	67		6	9			2		10					
1950~1960년 이전	60									2	5			
1960~1970년 이전	23				1					1	2	1	2	
1970~1980년 이전	24									1				
1980년 이후	24		3	1			1							16
계	367	68	16	17	2	4	11	1	10	4	7	1	2	17

〈표 3〉 소설에 등장한 수납공간 용어의 종류와 빈도

배경시대 \ 용어	광	곳간	헛간	고방	도방	도장	벽장	다락(방)	창고	지하실
1900년 이전	16	21	7				6	11		
1900~1930년 이전	3	3	15		12			1		
1930~1950년 이전	1	1	2	1		2			1	
1950~1960년 이전	3		6						2	
1960~1970년 이전			1					1	1	
1970~1980년 이전									11	
1980년 이후								9	1	2
계	23	25	31	1	12	2	6	22	16	2

대하편이나 장편이 적게 선정된 시대에는 중편이나 단편의 수를 늘림으로써 소설 분량으로 인한 분석상의 문제점을 최소화시키고자 하였다. 또, 본 연구의 목적이 용어의 빈도에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시대가 변화됨에 따라서 어떤 용어가 주로 사용되었으며, 그러한 용어는 언제부터 사라졌는지, 그리고 그 변화과정은 한국 주택의 전반적인 발전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를 밝히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므로 용어가 몇 회 등장하는가하는 빈도 자체를 부각시키

지 않는 것이 본 연구의 전체적인 흐름에도 맞다고 판단된다.

소설 속에 등장하는 취사공간 용어의 변화과정(표 2 참조)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900년 이전부터 1980년 이후까지 지속적으로 이용되었던 취사작업공간 용어는 부엌이었다. 붕당은 직접적인 취사작업공간이라기 보다는 취사 및 기타 작업을 위한 보조공간으로 널리 이용되었는데 1900년 이전을 배경으로 하는 소설 ‘입격정’에 많이 등장하였다. 다시 말하면,

다른 소설에서는 봉당이 소설의 배경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적었다.

찬간, 찬방, 뒷부석이라는 용어는 1900-1930년에 사용된 이후 더 이상 사용되지 않았으며, 취사장이라는 용어도 1930-1950년을 배경으로 하는 소설에서만 등장하다가 더 이상 사용되지 않았다.

1950년대를 배경으로 하는 소설에서는 부엌방이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되었는데, 부엌과 방이라는 두 용어가 합쳐지면서 취사작업공간으로서의 부엌의 기능에서 탈피하여 복합적인 용도로 사용되기 시작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이불과 베개를 옮겨 부엌방으로 건너가야 했고/ 미망 P297; 부엌방은 또출이 할 머니가 쓰고/ 노을 P72).

1960년대에 와서는 부엌방이라는 용어 이외에 식당방, 식당이라는 용어가 소설에 등장하였다. 우리나라의 전통주택에는 식사행위를 위한 별도의 공간이 없었으며 여러 개의 방이 각기 다목적으로 이용되면서 사용자의 식사공간으로도 이용되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식당방이나 식당이라는 용어는 서구식 생활양식이 보급되면서 1960년대에 와서 사용되기 시작하였던 서구식 공간용어임을 알 수 있다.

주방은 1900-1930년을 배경으로 하는 소설인 '토지 1권'에 처음으로 등장하였으나 소설의 내용을 보면 주택이 아닌 절의 부엌을 일컫고(절간의 주방만큼 넓은 최참판댁 부엌은... P24) 있었다. 그 이후 주방이라는 용어는 전혀 사용되지 않다가 1980년 이후 급작스럽게 많이 등장하였음이 밝혀졌다. 그러나, 소설에서 주방이라는 용어가 왜 별안간 등장하게 되었는지, 그러한 용어는 어디에서 유래되었는지를 본 연구의 결과만으로는 밝히기 어려웠다. 단지, 앞에서 언급한 부엌방이라는 용어를 한자로 표기하여 주방(廚房)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추측할 수는 있으나, 누구에 의해서 언제부터 주방이라는 용어가 우리나라에서 사용되었는지는 후속연구에서 분명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간계획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는 주거수준이 향상되면서 부엌이 다른 공간과 동일평면상에 계획되고 취사작업공간만이 아닌 식사를 겸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면서 기존 부엌과의 차별화를 시도하려는 의도에서 누군가에 의해서 주

방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하였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이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주택 설계 도면을 기초로 하여 도면에서의 공간변화와 도면에 제시된 용어와의 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소설의 문장에서 발견되는 흥미로운 사실은 주방이라는 용어가 나오는 문장에는 서양문화의 유입과 관련된 단어들도 반드시 등장한다는 것이었다(나는 주방으로 달려간다. 가스오븐 위에 있는 환풍기를 올린다/ 떠 있는 망루 P132; 커피를 들고 나는 주방 바닥에 주저 앉았다/ 모든 벽은 문이다 P179; 주방 쪽으로 조금 떨어진 식탁 위가 아니면 마루 한구석 어딘가에.../ 모든 벽은 문이다 P187; 독일산 포캔폴 부엌가구로 치장된 주방에서 그녀의 가벼운 아침식사를.../ 압구정동엔 비상구가 없다 P119).

소설에 나타난 문장을 분석한 결과, 수납공간 용어 중에서 1900년 이전부터 1980년 이후까지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용어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실은 한국 주택의 공간구성의 변화, 수납공간의 위상 변화, 수납물품의 종류 변화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수납공간 용어의 변화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900년 이전을 배경으로 하는 소설에는 수납공간 용어로 곳간, 광, 다락, 헛간이 많이 등장하였으며, 1900-1930년에는 헛간, 도방이 많이 등장하였다. 1930년 이후에는 특기할 만한 변화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1970년대에 와서 창고라는 용어가, 1980년대 와서는 다락방이라는 용어가 많이 등장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1980년 이후의 다락방의 성격은 기존의 다락 공간의 용도와 크게 달라졌다고 규정지을 수 있다. 즉, 1900년 이전의 다락은 물품수납 공간(다락이 한간이 넘어서 세간 나부랑이가 있건만.../ 임격정 6권 P314) 또는 숨는 공간(세 사람이 다락 속에 숨어 지내게 되었는데.../ 임격정 6권 P315)으로 이용되었지만, 1980년대 이후의 소설에서는 구차하기는 하나 일상적인 주거공간으로 묘사되는 경우(다락에다 비닐장판을 깔고 전기를 끌어들었다. 한 평 반 정도의 크기였다/ 지상의 방 한 칸, P382; 내 잠을 깨지 않으려고

살며시 다락문을 열어도.../외딴 방, P288)가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IV. 소설을 통해 본 부엌의 의미

다양한 가사작업공간 중에서 소설에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부엌을 선정하여 한국주택에서의 부엌은 어떤 의미를 지닌 공간이었는지를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서 부엌은 어떤 용도로 이용되었고 무슨 활동들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부엌이라는 공간을 사용하거나 드나들었던 인물은 누구였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소설에서 부엌이 언급되는 문장을 발췌한 후, 이들 문장 중에서 부엌에서 일어나는 활동들이 언급된 문장만을 추출해 내어 여러 가지 방법의 분류를 시도하였으며 결과적으로는 크게 네 가지의 활동공간으로 구분하게 되었다. 소설에 나타난 문장에서 내린 결론은, 부엌은 취사작업과 관련된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이었으며, 여러 가지 물건이 보관되는 공간이었고,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다목적 공간이었고, 잡다한 사건들이 발생하는 공간이었다는 것이다.

1. 취사작업을 하는 공간

소설에 나타난 문장 중에는 부엌이라는 공간에서 일어나는 생활내용이 묘사되는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예시된 문장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단순히 부엌이라는 고정된 장소를 지시하거나 방향만을 가리키는 경우도 많다는 사실이 발견되었다.

* 기다리다 못한 흥부는 부엌으로 비실비실 가서... (흥부전 P23).

* 부엌 쪽으로 달려가 밥과 술갈을... (노을 P33).

* 안방을 뺏긴 나는 부엌으로 거실로 괜히... (모든 벽은 문이다 P179).

* 오리처럼 뒤뚱뒤뚱 부엌 쪽으로 향하면서... (애미 P69).

* 영만이 부엌을 향해 소리를 지른다(토지 12권 P30).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부엌이 장소, 방향만을

가리키는 수준으로 간략하게 문장에 등장하기도 하였지만, 소설에서의 부엌은 아래의 문장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일상적인 취사작업공간 즉, 음식 만들기, 설거지하기, 불피우기 등의 취사와 관련된 작업을 하는 공간으로 묘사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 부엌에서는 전을 지져내느라 한창이었다(토지 2권 P173).

* 할매는 부뚜막에 앉아서 나물거리를 다듬는다(토지 14권 P303).

* 부엌에서 어제 휩쓸어두었던 설거지를 하던... (삼대 상권 P124).

* 컴컴한 부엌에서 골똘하게 보리방아를 찧던 마누라는... (소 P132).

* 부엌에서 막불을 지피다 말고... (은넷골 이야기 P90).

* 그 집 그 부엌에서 첫밥을 지었다(외딴 방 P288).

2. 여러 가지 물건이 보관되는 공간

소설의 문장을 분석한 결과, 부엌이라는 장소가 취사작업만을 위한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일상생활과 관련된 잡다한 물건들을 수납하기 위한 장소로 이용되었다는 것이다. 생활관련 물품에는 부엌에 당연히 있어야 하는 그릇이나 음식물 이외에도 마당비, 녀가래, 요강, 하이힐 등 취사작업과는 무관한 물건들을 보관하는 장소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부엌이 그릇, 바구니, 소반, 물독, 술독 등과 같이 음식을 저장하거나 취사와 관련된 집기들을 보관하는 장소 그리고 술, 소금 등의 식품을 보관하는 장소로 이용되었음은 다음의 문장에서 알 수 있다.

* 부엌바닥에서... 바구니를 발견하고 거북하게... (토지 2권 P123).

* 부엌에서 접시하고 작은 함지를 가져온 어매는... (토지 12권 P92).

* 부엌에서 찬그릇들을 연신 상위로 날랐다(노을 P125).

* 소반을 부뚜막에 올려놓고 찬장문을 열며... (토지 13권 P189)

* 그것은 끝내 부뚜막의 솔단지와 소금자루 뒤에서 발견되었다(지상의 방 한 칸 P331).

* 결눈으로 부엌을… 한복이 물독을 열고 물을(토지 2권 P122).

* 암거래되는 누룩이며 곡물을 사다 술을 빚고… 부엌 바닥에 흙을 덮었다(토지 14권 P260).

* 마른 멸치와 냉수를 가지고 부엌을 나오는데…(지상의 방 한 칸 P331).

부엌은 마당비, 넝가래, 도끼, 부지깥이, 대야 등의 주거생활관련 물품을 보관해두는 장소, 심지어는 오강(요강)이나 하이힐 등 상식적으로 부엌에 있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 물건을 비치해 두는 장소로 묘사되어서 부엌이라는 공간이 취사작업 이외에 수납공간으로서의 역할에 큰 비중을 담당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 부엌에서 마당비를 찾아들고 나서서…(임격정 4권 P133)

* 좁은 부엌에서 어쩔 수가 없어 대야에 담아 가지고 수돗가로 갔던…(외판 방 P290).

* 부엌 한구석에 놓인 오강(요강)을 집어…(장석조네 사람들 P147).

* 부엌문을 열면 선반이 보였는데 그 위엔 희재 언니가…신었던 듯한 자주색 하이힐이 놓여…(외판 방 P295).

3.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다목적 공간

부엌관련 문장을 발췌 분석한 결과, 소설 속에서 부엌은 음식을 장만하고 설거지를 하는 취사작업공간, 잡다한 물건들을 보관하는 장소로서만 묘사되는 것이 아니었다. 취사작업공간과 물품수납공간이라는 기능의외에도 부엌은 여러 가지 활동이 이루어지는 다목적 공간으로 이용되었는데 여러 소설에 등장하는 문장들을 정리하면 다음의 예시와 같이, 부엌이 고사지내는 장소, 밥먹는 장소, 잠자는 장소, 빨래하는 장소 등으로 인식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 "조왕님께 고맙습니다." 큰술이 걸려 있는 부엌

벽면을 향해 성환할때는 손을 비벼며 절을 하고…(토지 14권 P136).

* 내가 부엌에서 밥을 먹게 되면…(관촌수필 P422).

* 늙은 여편네가 부엌에서 점심 한 술 얻어먹고…(임격정 5권 P197).

* 이불과 베개를 옮겨 부엌방으로 건너가야 했고…(미망 P297).

* 부엌에서 물을…남희 옷을 담그고 비누질을…(토지 15권 P146).

부엌이 밥을 먹는 장소로 표현된 문장이 많이 발견되기는 하였으나, 신분에 따라서 부엌에서 밥 먹는 일이 허용되지 않았음을 다음에서 알 수 있다.

* 나는 들키지 않게 부엌으로 들어가 찬간 대청에서 밥을 먹었다(관촌수필 P422).

4. 잡다한 사건이 발생하는 공간

소설에서 부엌은 앞에서 언급한 세 가지 기능의외에도 모임의 장소, 숨는 장소, 고자질이나 뒷공론을 하는 장소, 소문을 퍼뜨리는 장소, 울거나 싸움하는 장소 등 다양한 사건이 벌어지는 공간으로 비교적 자주 등장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 안대문에 들어서자…부엌에 사람이 득실득실한다(창랑정기 P12).

* 언년이가 부엌으로 숨어버린다(토지 7권 P275).

* 어둡침침한 봉당 구석과 부엌 구석에 숨어 앉아서…(임격정 6권 P130).

* 부엌에 박혀 있던 금순이가 방까지 따라 들어와…(월훈 P198).

* 그 말을 들은 숙이는…부엌에서 일러바친다(토지 16권 P224).

* 며느리는 부엌 속에 처박혀 앉아서…여편네와 속살속살 뒷공론하고…(임격정 4권 P109).

* 부엌에서뿐만 아니라 마을에까지 소문이 자자했다(토지2권 P373).

* 금아가 부엌 소식을 알리는 소리였다(인간사 P16).

* 막딸이는 부엌 부뚜막에 앉아…울고 있었다(토지 12권 P26).

* 아궁이 앞에서 울었구나…(토지 10권 P199).

* 밥사발을 들어 입이네 면상을 향해 던진다(토지 2권 P321).

* 노침지의 머리를 땅바닥에 대고…피가 잘 그치지 아니하여 머리를 가지고 부엌에 들어가서 매운 재에 피를…(임격정 4권 P109).

V. 소설에 나타난 부엌의 설비, 위치, 사용자

1. 부엌의 설비

소설에서 설명되는 부엌은 대부분이 설비수준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엌에 대한 설명으로 집안의 경제수준이 높고 낮다는 것을 가늠하기 쉬운 경우도 있기는 하였으나, 부엌이 등장하는 문장을 보면 상류층 부엌내부의 정갈한 모습이나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살아가는 생활내용을 묘사하는 경우는 매우 적었다.

‘토지’나 ‘삼대’ 등 양반이 주인공으로 설정된 소설에서도 상류주택의 부엌 내부를 묘사하거나(절간의 주방만큼 넓은 최참판댁 부엌은…/ 토지 1권 P24), 부엌 안에서의 활동이 분주하게 일어나는 모습이 묘사되는 경우(안대문을 들어서자 냄새가 코를 찌르고 대청과 부엌에 사람들이 득실득실하다/ 창랑정기 P12)는 극히 적었다.

이에 비해서 생활이 어렵고 누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부엌 상황을 묘사하는 경우는 많았는데 대표적인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서까래만하게 가는 기둥에 흙이 부실부실 떨어지는 벽은 구멍이 숭숭 나 있고 문짝도 없는 부엌에서…(토지 2권 P321).

* 좁은 부엌에서 어쩔 수가 없어…수돗가로 갔던…(외딴 방 P290).

* 간막이도 문도 없이 그냥 노천으로 이어진 행한 부엌 하나를 세 가구가 줄줄히 공동으로 사용하는…(지상의 방 한 칸 P354).

* 추녀 밑을 거적으로 가려 부엌도 시늬만 내 놓은…(관촌수필 P454).

부엌관련 문장에서 많이 등장하는 부뚜막의 용도에서도 부엌의 설비수준을 알 수 있었다. 즉, 부뚜막은 소반을 올려놓거나(토지 13권 189), 술 단지와 소금자루가 놓이는(지상의 방 한 칸 P331) 장소, 사람이 걸터앉아서 울거나 이야기하는(토지 14권 P46) 장소, 나물거리를 다듬는(토지 14권, P303) 장소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다. 또, 부엌바닥이 비로 쓰는 흙바닥으로 묘사되어 있거나(토지 12권 P91), 어두워서 남포 불을 켜서 밝히는 공간으로(토지 15권 P143) 묘사되기도 하였다.

이상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소설에 나타난 문장의 분석만으로는 한국 주택에서 부엌의 설비가 현대화되고 평면계획화, 입식화되는 변화과정을 밝히기 어려웠다. 그 이유로는 대부분의 소설에서 시대 변화와 관계없이 재래식 부엌이 소설의 배경으로 많이 등장한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이것으로 여러 연구결과에서 나타나는 통계수치상의 입식부엌 비율의 증가가 소설에서는 그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한국 주택에서의 부엌의 변화모습이 소설 속의 문장에 나타난 예를 보면, 1950년대 배경소설에서는 개량부엌(녹지대와 분홍의 애드빌룬 P474), 부엌방(미망 P197)이 있으며, 1980년대는 입식 부엌문과 싱크대(지상의 방 한칸 P371, P376), 가스오븐(떠 있는 망루 P132), 독일산 포켄볼 부엌가구(압구정동엔 비상구가 없다 P119), 식탁(모든 벽은 문이다 P187)이 있는 정도이다. 이것은 본 연구가 1980년대 소설까지를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한 까닭에 1970년대의 대형 아파트단지의 공급과 더불어 급격하게 확산된 부엌의 입식화, 부엌설비의 고급화 등의 변화가 그 당시까지 소설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2. 부엌의 위치

소설에 나타난 문장을 분석한 결과, 조선시대 주

택이 신분이나 남녀에 따라 공간이 분화되어 안채, 사랑채, 행랑채로 구별되며 각 채에 별도의 부엌을 두는 경우가 많다는 선행연구의 내용을 아래에 제시한 문장 등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부엌 앞에 채의 이름을 붙이지 않고 그대로 부엌이라고만 서술한 문장이 대부분이었다. 그런 경우, 앞뒤의 내용을 보면 대개가 안채에 속한 부엌을 지칭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소흥이 집은 기억자에 안방, 안방 부엌, 대청, 건넌방이 있고 일자 아래채에...(임격정 8권 P237).

* 사랑 부엌 가마솥에서 물릴 지경이 되도록 말아냈던 여러 가지 냄새들을...(관촌수필 P309).

* 배주사네 집은 안채, 사랑채, 행랑채마다 부엌이 따로...(노을 P85).

* 안채 부엌에서 기춘이택이 연방 그릇을 달그락 거리는...(애미 P27).

* 행랑부엌이 따로 있는...(귀의 성 P199).

또, 소설에서 부엌은 장독대, 뒷마당, 우물가, 광 등과 가깝게 배치되어 있으며 가사작업을 위한 공간으로서 집안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장독대와 부엌을 오가며 저녁 준비를 서두른다(토지 16권 P224).

* 부엌 문지방에 놓고... 뒤결에서 기다리고 있는...(토지 2권, P123).

* 부엌 앞 우물 곁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노을 P85).

* 부엌 뒤로 나가서 광에 붙은 그 방은...(이브의 변신 P444).

3. 부엌 공간의 사용자

취사작업공간, 수납공간,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 잡다한 사건이 발생하는 공간으로 인식되었던 부엌공간을 사용했거나 드나들었던 인물은 누구였을까? 남자는 부엌출입을 삼가라고 했다는데(사내자석이 정기에 들어오른 안 되는데.../ 토지 3권 P410) 소설 속에서도 과연 그러한가?

이에 대한 답을 얻어내기 위하여 부엌이 등장하는 모든 문장에서 부엌 안에 있었거나 어떤 활동에 참여했거나 드나들었던 것으로 표현된 인물을 분석해 보았다. 결과는 부엌 내에서의 실제행동이 묘사된 인물은 야무어매, 백손어머니, 색시어머니, 장모, 어멈, 엄마, 아낙, 함안댁, 할멈, 또출이할머니, 애기, 며느리, 손주며느리, 숙이, 계집, 계집종, 드난꾼 아낙, 처녀 등으로 여자가 대부분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다음의 문장에 제시된 바와 같이, 남자들이 부엌을 출입하는 장면도 적지 않게 발견되었다

* 흥부는 부엌으로 가서...(흥부전 P23).

* 주전자를 받아들고 영만은 부엌으로 가서...(토지 12권 P26).

* 휘는 환하게 눈에 익은 부엌으로 들어갔다(토지 13권 P189).

* 새로 밥을 짓는 중에 그 남자가 부엌에 들어갔다(임격정4권 P137).

* 배생원은 부엌으로 들어가...(태양의 유산 P191).

즉, 부엌을 출입하는 인물이 누구인가 하는 것의 차이는 남자와 여자라는 성별에 기인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여기에서 특기할 만한 사실은 45개의 소설 중에서 어느 소설에도 상류계층의 남자는 물론이고 상류층의 여자도 부엌에서 작업을 하거나 드나드는 모습이 전혀 묘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부엌을 출입하는 사람에 있어서의 차이가 성별에 기인한다고 추측하는 것은 실제 생활과는 괴리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계층적 차별을 제외한다면, 소설에서 부엌은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설을 앞둔 최참판댁은 앞뒤가 분주하다. 특히, 부엌을 중심한 곳이 들끓었다/ 토지 2권 P170)로서 자주 등장하곤 하였다.

VI. 결론 및 제언

선행연구의 고찰을 통해서 한국 가사작업공간의 변화를 밝히고, 문학작품 중 한국 소설을 분석자료로 활용하여 오늘날까지 사용된 가사작업공간 용어의 종류와 변화과정을 알아보고, 가사작업공간 중에

서 소설에 가장 많이 등장한 부엌을 중심으로 공간의 의미, 설비, 위치, 공간사용자를 밝힌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한국 주택에서 가사작업공간은 부엌을 중심공간으로 하면서 위치, 설비, 공간계획 등에서 많은 변화를 거치면서 오늘날에 이르렀다. 그러나 조선시대의 전통적인 부엌은 1970년대까지도 많은 발전을 하지 못한 채 유지되어 오다가 아파트의 대량공급과 함께 난방과 취사가 분리되면서 서구식 입식부엌이 확산되고 설비수준도 높아지면서 급격한 발달을 이루게 되었다.

소설 속에 등장한 관련 문장을 분석한 결과, 부엌은 한국주택의 가사작업공간 중 취사공간을 지칭하는 용어로 가장 많이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용되어 온 용어이었다. 봉당은 1900년 이전에 사용되었고 찬간, 찬방 등의 용어도 1930년 이후에는 소설에 나오지 않았다. 1960년대에 새로 등장한 용어는 식당, 부엌방 등이며 1980년 이후에는 주방이라는 용어가 소설 속에 등장하였다.

수납공간을 지칭하는 용어는 그 변화가 더욱 심하였다. 곳간, 광, 다락, 헛간, 도방 등의 용어는 1960년대를 넘어오면서 더 이상 사용되지 않았고, 다락이라는 용어는 공간사용상의 개념이 바뀌어지면서 1980년 이후 다시 소설에 등장하게 되었다.

소설을 통해 본 부엌은 취사작업을 하는 공간, 여러 가지 다양한 물건이 보관되는 공간, 고사를 지내거나 빨래를 하는 등 여러 가지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 싸우거나 몸을 숨기고 사건이 벌어지면 해결하는 등 잡다한 사건이 벌어지는 공간이었다.

소설에 나오는 대부분의 부엌은 사랑채나 행랑채보다는 안채에 위치한 부엌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았다. 부엌은 집안의 경제수준을 가늠하기 좋은 대상공간으로 등장하기는 하였으나,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집안의 부엌이 묘사된 경우보다는 가난한 사람들의 누추한 부엌이 소설의 배경으로 많이 등장하였다.

소설에서 부엌공간을 사용하고 드나드는 사람은 주로 여성이었으나 남자도 비교적 자유롭게 드나드는 공간으로 표현되었다. 그러나 소설 속에서 상류

계층은 남녀구별 없이 부엌에서의 어떤 종류의 작업에도 참여한 적이 없었다. 다시 말하면, 상류계층을 제외한다면 한국 주택의 부엌은 많은 사람이 드나들고 모이고 생활하는 장소이었다.

본 연구는 주거공간 연구에 이차적인 자료인 문학작품을 이용한 것이므로 그에 수반한 문제가 도출될 수 있다고 본다. 이에 대한 보완은 차기 연구과제로서 설계도면을 분석한 결과가 나와야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또, 본 연구에서 다루어지지 못한 부엌 이외의 다른 가사작업공간에 대해서도 심층적인 분석이 계속되어야 전반적인 주거공간 연구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참 고 문 헌】

- 김경원(1987). 한국 상류주택의 내부공간 구성에 관한 연구. 고려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유옥순(1988). 한국 농가주택의 부엌공간 변화요인에 관한 연구-전북지역의 식생활의 변천을 중심으로-. 연세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윤복자 외 4인(1994). 한국 부엌의 변천-구석기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 한국주거학회지 5권2호, p41~50.
- 윤정숙 · 이은경(1990). 도시화되는 농촌지역 주택의 식사·취사공간 사용방식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지 창간호, p77~89.
- 윤정옥(1981). 한국의 전통적 주방공간에 관한 연구. 고려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임창복(1989). 한국 도시 단독주택의 유형적 지속성과 변용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서귀숙 외 4인(1998). 문학작품을 통해서 본 한국 주거공간 용어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지 15호, p49~61.
- 신화경 외 4인(1998). 한국 주거공간용어 변화에 대한 기초 연구-문학작품에 나타난 용어를 중심으로-. 한국주거학회지 9권2호, p97~104.
- 오혜경 외 4인(1999). 소설에 나타난 안방의 의미와 용도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지 18

- 호, p81~86.
- 이중우(1988). 체·용사상에서 본 주거공간의 변용에 관한 연구. 한양대 박사학위논문.
- 전경화(1999). 실의 연계관계 분석에 의한 우리나라 단독 주택의 공간구성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지 18호, p96~102.
- 주서령(1998). 한국 안방의 의미와 변천에 관한 연구. 경희대 생활과학연구소 생활과학논집 2권 1호, p115~123
- 주남철(1987). 한국주택건축. 일지사.
- 최찬환(1986). 한국의 농촌과 도시 주거양식의 비교 연구. 연세대 박사학위 논문.
- 홍형옥(1995). 한국주거사. 민음사.
- 서귀숙(1996). 言語による建築的空間の表現に関する基礎的考察. 京郷工藝纖維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 서귀숙(1996). 文學作品의空間描寫における空間構成の部分と全體の關係に関する研究. 日本建築學會計劃系論文集 No.489.
- Frank, Ellen Eve(1979). Literary Architectur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